[별첨 2] 해외파견 프로그램 체험후기

해외파견 프로그램 체험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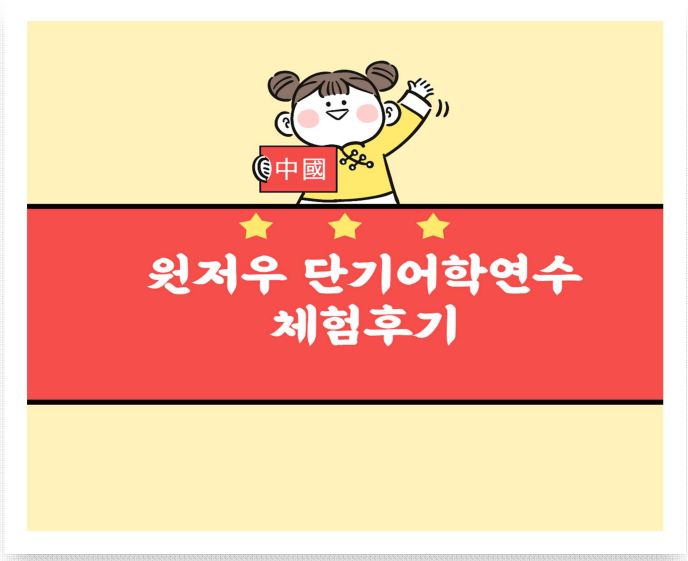
지원 분야	☐ 교환학생	☐ 중·장기 어학연수	☑ 단기 어학연수

인적사항	

파견 정보				
	파견 국가	중국 원저우	파견 학교	원저우대학교
	파견 시기	2019년 12월23일~1월17일		
	수강 과목 개요	과목명	과목 설명	
		현지중국어회화	단기 어학연수&문화체험 프로그램	

체험후기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2학기 동계 계절학기에 원저우대학교로 단기어학연수를 다녀온 무역학과 배유경입니다.
짧게 보일 수 있는 1달이라는 시간 동안 중국에 작은 도시 원저우에서 생활하면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원저우 대학교 친구들과 교류하고 중국에 문화를 학습하고, 중국전통 음식을 먹으며 다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중국으로 단기어학연수를 가기 전 책, 인터넷, 뉴스 등에서 접하는 중국은 저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부딪히며 알게된 중국의 모습은 한국처럼 정많고 따뜻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께도 이런 중국에 모습을 알려드리고자 체험후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원저우 대학교 수업 & 문화체험
중국에서의 수업은 오전, 오후로 각각 나눠 진행됩니다.
오전에는 9시부터 원저우대학교에서 나눠주신 교재로 중국어 수업을 듣습니다. 중국어 수업은 보통 영어로 진행됩니다. 제가 갔을때는 중국어 선생님께서 한국어를 잘하셔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한국어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친절하게 중국어 기초부분부터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수업을 못따라가지는 않을까? 라는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같습니

다.
오후수업은 주로 중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해주셨습니다. 박물관이나 전통가면 만들어보기, 서예수업 등 중국의 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해봄으로써 중국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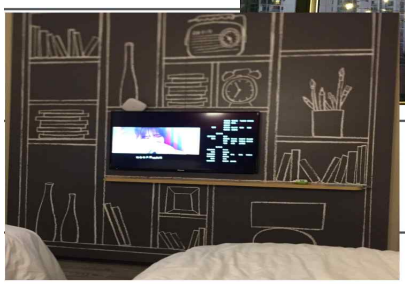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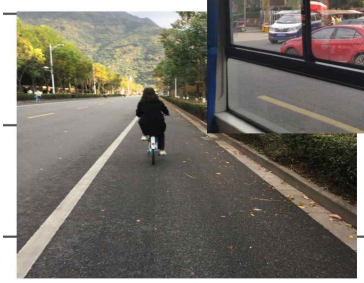

2. 숙소&교통&결제방법

숙소는 원저우대학교 근처에 위치해있는 ibis 호텔에서 생활했습니다. 호텔이다보니 조식이 매일 아침 무료로 제공되었고, 청소나, 기본적인 생필품(샴푸, 린스, 칫솔, 드라이기, 치약, 수건, 휴지)을 받을 수 있었어요. 호텔도 정말 깨끗해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원저우대학교까지 수업받으러 갈 때 주로 걸어다녔습니다. 걸어서 20분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침에 운동삼아서 다녔어요. 자전거나 버스를 타고 등교할 수도 있는데 버스는 보통 2위안 정도입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알리페이라는 앱을 사용하여 결제해야 합니다. 알리페이는 여권으로도 등록할 수 있지만 간혹 인식이 안된다고 뜰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중국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고 연동시켜야 해요. 이럴때는 원저우대학교 측에서 은행에 동행하여 계좌를 개설할 때 도와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알리페이는 학교내 식당, 자전거사용에 꼭 필요해서 설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백화점이나, 버스, 마트 등에서는 현금사용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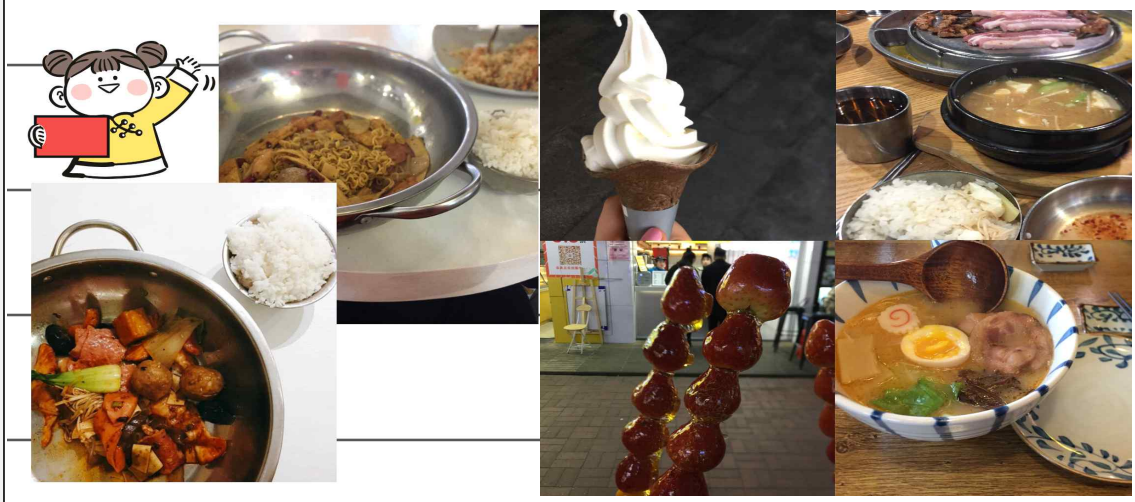


3. 숙소 근처& 학교식당 맛집 추천, 중국 물가

저는 중국갈 때 가장했던 부분이 바로 '음식' 이었습니다. 중국음식은 대부분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고, 간이 센 것이 특징인데요. 제가 향신료를 잘 먹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 현지 식당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첫째날에는 주변에 무슨 음식이 있는지도 잘몰랐고, 낯선곳이다보니까 들어가는데마다 음식이 입에 안맞아 고생했는데 점점 생활에 익숙해지다보니 맛있는 음식점을 많이 찾게 되었어요. 그중에서도 정말 맛있었던 몇곳과 간식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라샹궈로 아래 사진에 보이는 음식입니다. 이 마라샹궈 식당은 원저우 대학교 내에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기본10000~15000부터 시작하는 마라샹궈가 여기서는 아무리 많이

담아도 4000원 아래로 가격이 나오더라구요. 저는 심지어 향신료 때문에 한국에서 마라샹궈 먹지도 못했는데 여기 마라샹궈는 진짜 맛있었어요.
두 번째는 숙소근처에 있는 한국음식을 파는 식당입니다. 2층에 위치해있었는데 된장찌개, 김치찌개, 삼겹살, 갈비, 김치 등 한국음식을 팔아요. 1달정도 중국에 머물동안 10번 넘게 갈정도로 애용했고, 직원분들도 친절하시고 좋았아요. 특히 중국에서 먹는 한국식 삼겹살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다음은 간식류 추천인데요. 저는 숙소 근처에 있는 kfc 아이스크림과 탕후루를 추천합니다. 매일 먹어도 또 생각날정도로 너무 맛있었어요. 중국은 물가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한국보다 싼 가격으로 사먹을 수 있었어요. 식당에서는 보통 5000원 정도면 충분히 먹을 수 있고 식당에 경우에도 1인당 평균적으로 7000~8000원정도 나온것같습니다.



4. 원저우 가볼만한곳 추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수업을 듣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주말에 중국 친구들에게 추천받은 원저우 관광지를 버스를 타고 가보았는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추천해드릴 곳은 '원저우 놀이공원'과 '완상청 백화점' 입니다.
우선 원저우 놀이공원은 가격은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약130위안 정도였습니다. 놀이기구는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만큼 화려한게 많지 않고 무섭진 않았지만 재밌는 것도 많았습니다. 특히 사진찍을 곳이나 조형물들이 예쁘게 있어서 구경할거리가 많았어요. 원저우 놀이공원내에 사람은 제가갔을 때 별로 없어서 놀이기구를 거의 기다리지 않고 탔었습니다.
완상청 백화점은 다양한 옷가게와 예쁜 카페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2번째 사진에 나와있는 서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분위기도 편안하고 여러책들도 구경할 수 있어서 갈때마다 들렸습니다. 완상청 백화점에는 특히 많은 음식점들이 있어서 하루 날잡고 놀다와도 될만큼 크고 볼거리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5. 항저우 여행

원저우에서의 수업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가기전 2박3일로 항저우에 다녀왔습니다. 항저우에 갈때는 가이드 선생님 2분이 동행하셨고 함께 기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중국에서 기차를 처음 타보는 거기도 하였고, 원저우가 아닌 다른곳을 간다는 생각에 설렜던 것 같아요.
항저우에서는 송성테마파크에 간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이곳은 이미 항저우 관광지로서 유명한 곳이더라구요. 실제로 제가 갔을 때 패키지로 오신 한국인분들을 보았어요. 송성테마파크에서 자유시간을 주셔서 이곳저곳 구경도 하고 공연도 보고 좋은 추억을 쌓고 왔습니다. 항저우에서 다닐때는 관광버스로 이동하였고, 숙소에 돌아오면은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6. 중국친구들과의 추억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아무래도 모든게 낯설다보니 적응하는게 힘들었습니다. 그런 저희를 도와준 친구들이 바로 원저우 대학교 학생들이었어요. 처음 멘토 멘티에 관계로 만나 학교 곳곳을 소개시켜주고, 숙소주변에 마트나 교통편들을 알려주어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때면 언제든지 와주어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처음에 서로서로 서먹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대화도 하고 점점 친해지다보니 주말에 같이 놀러가기도 하고 수업끝나고 밥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에 돌아갈 무렵쯤에는 이별이 슬플만큼 정도 많이 들어 선물도 주고 받았습니다. 단기 어학연수를 통해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나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7.느낀점

앞서 말했듯이 저에게 비춰진 '중국'에 모습은 한국에게 무역적으로 압박을 가하여 곤란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이미지에 국가였습니다. 중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외부로 보여지는 나라 그 자체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접 중국사람들과 어올리며 그들의 삶을 배워가면서 이곳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어가 서툰 저에게 누구보다 친절하게 대해주신 종업원분, 길을 물어보면 알려주시는 행인분 그 모두가 중국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니 앞선 저의 생각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 단기 어학연수를 통해 제 자신의 생각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 기간동안 좋은 인연들을 만나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단기어학연수가 힘들지 않을까, 적응하지 못할까 등의 고민과 걱정으로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의 체험후기를 보고 용기를 얻고 한번쯤은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